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3호 (2026.03.27)

■ 이 슈

(산업) 인천시 자동차산업 및
자동차 부품기업 현황 분석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3호 (2026.03.27)

Cotents

I. 이슈

(산업) 인천시 자동차산업 및 자동차 부품기업 현황 분석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경제) 금융위, '새출발기금' 인센티브 및 재기 지원 강화 추진 11

(금융) 정부, 기업·국민의 탄소 감축 투자에 금융지원 실시 11

(산업) 정부,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추진 12

(산업) 국토부, '2030 모빌리티 로드맵' 발표 12

(산업) 개인정보 유출의 기업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공표 13

(산업) AI·스마트기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시작 13

(산업) AX 속도 향상을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착수 14

(노동) 교육부,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 발표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상민경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산업 > 인천시 자동차산업 및 자동차 부품기업 현황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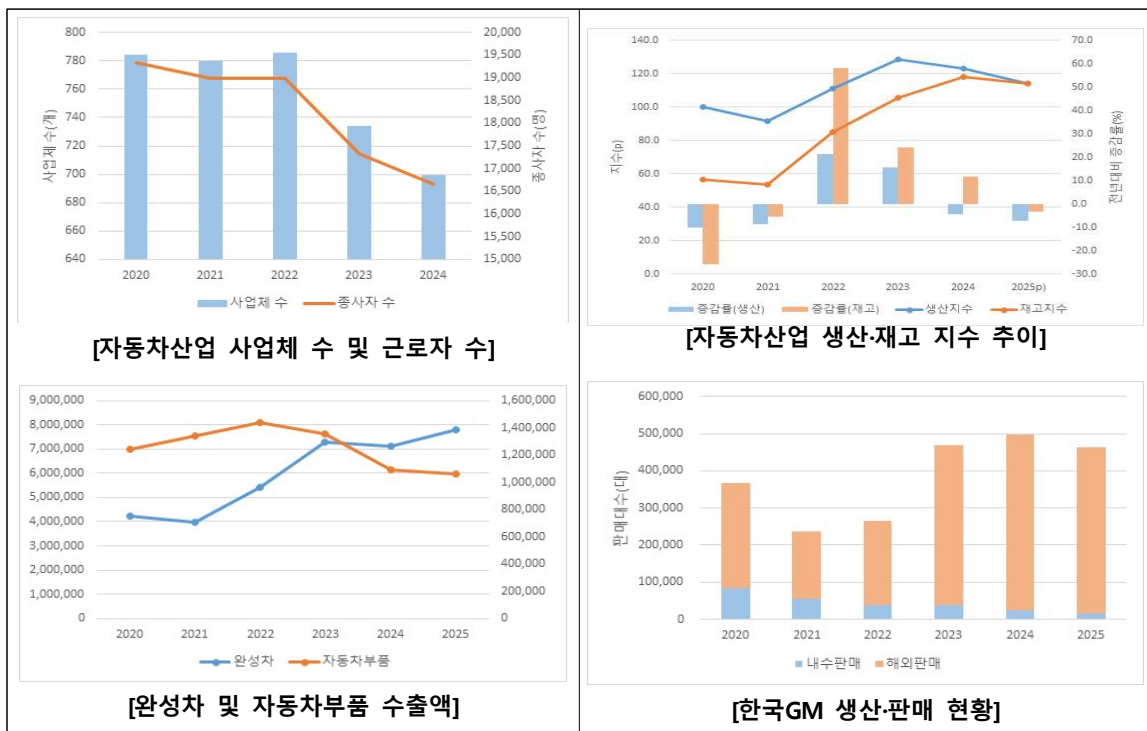
#인천시 #자동차산업 #제조기업 #실태조사

-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내수 회복세 지연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의 트렌드가 ‘자율주행’·‘친환경’을 키워드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인천시는 관내 자동차 분야 기업이 직면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최근 내수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금리인하 속도 둔화 △산업 트렌드 변화 △지정학적 분쟁 지속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국내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문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며 산업 전환기에 진입
 -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당분간 계속되나, 누적된 가계부채와 가계 소비성향 저하, 물가 불안 등이 소비 개선세의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11월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련 관세가 15%로 확정되었으나 최근 미국이 국내 산업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하는 등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예고¹⁾했으며, 이란 등 일부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이 자동차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 존재
 -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트렌드가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자율주행’ 키워드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제조기업은 △핵심기술 변화 △신규 참여자와의 경쟁 △불완전한 규제 환경 등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
 - 인천시의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제조기업인 한국GM과 다수의 부품사가 존재하는 구조로, 기업의 규모 및 생산품 등에 따라 외부 상황 변화로 인한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
 - 한편, 관내 완성차 제조기업인 한국GM의 경우 언론을 통해 △내수판매 부진 △국내 신제품 투자 부진²⁾ △미국 관세부과 등 다양한 사유로 한국 철수설이 제기되며 주기적으로 관내 자동차산업 위기론이 대두되는 등 관내 자동차 제조 관련 기업의 불안이 높은 상황
 - 인천시 자동차산업의 경우 ①1개 앵커기업과 다수 공급사의 전속 협력구조 ②자동차 부품 수출 부진 ③판매처 다각화 부족 ④탄소중립·관세 ⑤기술전환 지연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한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관련한 기업 동향 정보 부족으로 지자체의 지원 정책 마련에 한계가 존재
 - 이에 본 고는 관내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천시 자동차산업 실태조사’ 결과와 인천시 자동차산업 지원 정책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인천시의 자동차산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1) 연합뉴스(2026.03.12.).

2) 2025년 12월, 2026년 3월 두 번에 걸쳐 한국GM이 국내 생산 설비에 대한 총 6억 달러 규모 투자를 발표함에 따라, 당분간은 투자부진으로 인한 ‘한국GM 철수설’은 사그라질 전망이다(연합뉴스, 2026.03.25.).

- 인천시 자동차산업 사업체 수는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생산지수는 소폭 감소하나 완성차 수출액은 증가하는 등 산업 경기의 상·하방 신호가 동시에 확인
 -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자동차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5.6% 감소한 699개 사,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3.8% 감소한 약 1.7만 명 수준으로, 202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 2025년 말 기준 인천시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7.2% 감소한 114.1로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재고지수 역시 114.4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산업 경기 판단에 주의가 필요
 - 2025년 인천시 완성차 수출은 전년대비 9.3% 증가한 약 77.9억 달러 규모로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약 10.5억 달러 수준으로 2022년 이후 감소 전환
 - 인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완성차 기업인 한국GM의 2025년 기준 완성차 생산 대수는 전년대비 6.7% 감소하였으며, 내수와 수출 판매 대수가 각각 39.2%, 5.5% 감소하며 전반적인 사업 규모가 전년대비 축소
 - 2024년 한국GM의 판매 대수는 50만 대에 육박하여 영업 흑자를 기록한 후 2025년 소폭 하락하였으며, 2025년 기준 생산량은 국내 완성차 6개 기업의 약 11.2%를 차지하나 판매는 대체로 수출에 의존³⁾
 -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주)⁴⁾를 포함한 한국GM의 근로자 수는 2025년 기준 10,565명으로 2021년 11,652명에서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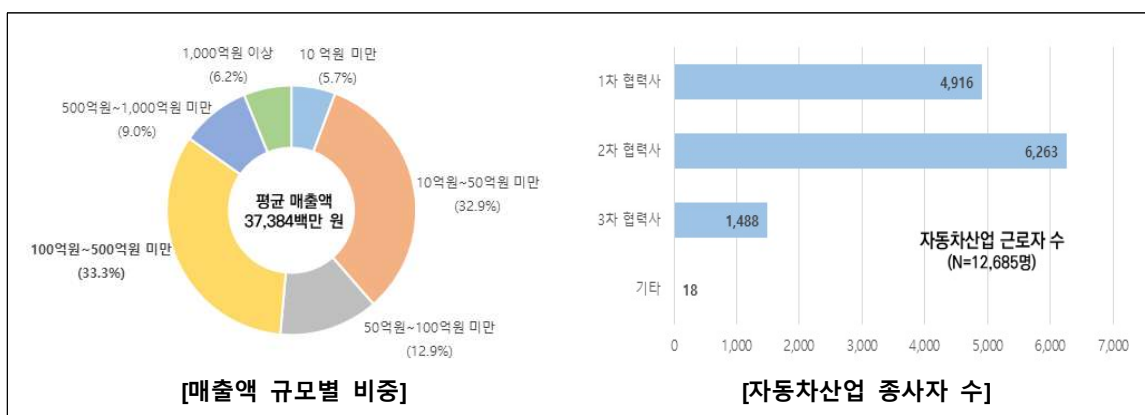
* 자료 :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광업제조업동향조사', K-stat 무역통계 '지역별 품목 수출입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산업통상부_기업별 자동차 산업 현황'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그래프 좌측은 완성차(MTI741), 우측은 자동차부품(MTI742)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인천시 자동차산업 현황

3) 한국GM 국내·외 판매 비중은 2020년 내수 23%, 수출 77%에서 2025년 현재 내수 3%, 수출 97%로 변화하며 수출 의존도가 심화.
 4)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주)는 GM의 한국연구개발법인으로, 자동차 성능·주행·디자인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

-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는 인천시의 자동차산업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산업 현황 정보제공을 위해 인천 지역 소재 자동차·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활동 현황 및 정책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 실태조사 모집단은 관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해당 기업 △C30 이외 업종 중 자동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한국GM 납품업체 △인천모빌리티연합 회원사 등을 포함한 관내 자동차 관련 제조기업으로 구성
 - 실태조사는 기업 기본정보 이외에 ①재무·생산·판매 현황 ②근로자 수 ③업황 및 전망 ④사업전환 및 관세 영향 ⑤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수요 등 5개 부문으로 구성
- 조사에 응답한 210개 기업 중 약 70%가 지사·공장 등이 없는 '단독사업체'로, 210개 사의 평균 업력은 23.3년, 평균 매출액은 약 37,384백만 원 수준⁶⁾
 - 자동차산업 협력 단계별로는 주로 '2차 협력사(50.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 협력사' 및 '3차 협력사'는 각각 18.1%, 30.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남동구(43.3%)에 가장 많이 분포해있으며, 다음으로 △서구(32.9%) △미추홀구(8.1%) △연수구(6.2%) △부평구(4.8%) 순
 - 응답 기업 중 약 40.5%가 자본금 3억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는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33.3%)' 및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2.9%)'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수
 - 1·2차 협력사는 매출액 규모가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각 36.8%로 가장 높았으며, 응답 기업의 약 80.0%는 전체 매출액 대비 자동차 제품 매출액의 비중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 응답 기업의 총근로자 수는 13,899명으로 이 중 약 91.3%가 자동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2,348명이 정규직으로 근로
 - 연령대별 근로자는 △40대(33.4%) △50대(32.6%) △30대(20.2%) △20대(10.3%) △60대 이상(3.5%) 순으로 40~50대가 전체의 66.0%를 차지하며, 자동차산업 협력 단계가 낮아질수록 20~30대 근로자의 비율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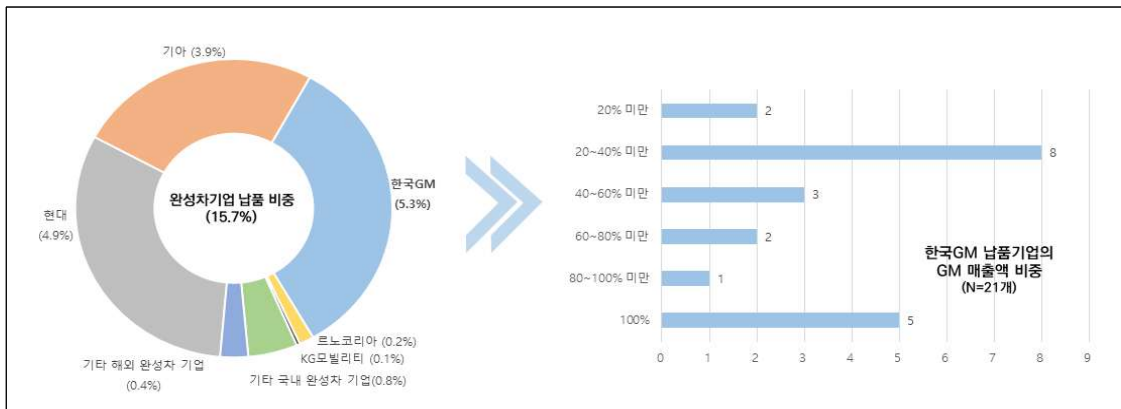
* 주 : 사업장 매출액 규모는 인천시 관내 사업장의 고용인원 수를 기준으로 기업 전체 매출액 규모에서 추산

[그림 2]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 매출액 및 근로자 수 현황

5) 모집단 889개 사를 대상으로 약 5주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여 23.6%의 응답률(210개 사) 확보.

6) 평균치의 특성상 전체의 약 11.2%에 해당하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반영되어 다소 과다 산정되었을 가능성.

-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9.70조 원으로 이 중 약 16.7%가 수출액에 해당하며, 응답 기업은 산업 내 협력 단계 및 주요 생산품 분야와 관계없이 대체로 다수의 기업과 동시에 거래 중인 것으로 조사
 - 자동차 관련 기업의 주요 매출 품목은 △전기·전자 장치(24.6%) △동력전달 부품(17.6%) △엔진 관련 부품(13.7%) △엔진 주요 부품(10.4%) 순으로, 1차 협력사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약 57.4%를 차지
 - 응답 기업 중 2024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32개 사(15.2%)로, 이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59.4%)과 중국(21.9%)⁷⁾ 등
 - 관내 기업의 수출은 ‘1차 협력사(73.0%)’가 주도하고 있으며, 총수출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전기·전자 장치(33.1%) △엔진 관련 부품(32.0%) △동력전달 부품(22.7%) 순
 - 1차 협력사의 경우 완성차기업, 모듈·시스템 기업, 타 1차 부품기업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2차 협력사는 주로 다수의 1차 협력사와의 수직적 거래관계를 보유
 - 관내 1차 협력사의 완성차 대상 매출액 비중은 △한국GM(29.2%) △현대(27.3%) △기아(21.7%) △기타 국내 완성차(4.3%) 순⁸⁾으로 인천 지역 외 기업으로부터의 매출도 적지 않은 편이나, 한국GM과 거래하는 21개 기업 중 5곳은 타 거래처 없이 매출의 100%를 한국GM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의 주요 생산품은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한국GM 거래업체의 경우 동력전달장치 부품(8.3%) 및 기타 부품(7.9%)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



* 주 : 거래업체별 매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작성

[그림 3] 1차 협력사의 거래 완성차업체별 매출액 비중

-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은 대체로 사업전환⁹⁾에 관해 부정적이며, 미국 관세와 관련해서는 약 51.4%의 기업이 직·간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자동차산업 협력 단계와 관계없이 응답 기업 중 대다수는 사업전환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5곳) 사업전환 준비(진행) 중인 기업은 ‘자금조달’ 및 ‘판로 개척’을 사업전환의 주요 어려움으로 선정
 - 사업전환을 준비(진행) 중인 기업은 주로 내수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개 사는 자동차산업 외

7) 주요 수출국 1, 2순위 합산 기준.

8) 1차 협력사의 완성차기업 이외의 매출액은 모듈·시스템 기업 3.7%, 기타 1차 부품기업 9.7% 수준.

9) ‘사업전환’이란 현재 산업 분야에서 기존 생산품 외의 다른 제품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업종 추가)하거나, 생산품을 다른 제품으로 변경(업종 전환)하거나, 다른 산업 분야로 사업을 전환(업종 전환)하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

4 •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고려 중

- 사업전환의 주요 장애요인(1, 2순위 합산)으로는 ‘연구·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자금조달(80.0%)’과 ‘신규 품목의 판로 확보(80.0%)’를 선정
- 미국 관세의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51.9%가 관세부과로 인한 긍·부정적 영향을 예상했으나, 관세의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의 약 3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관세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주로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78.5%)’와 ‘철강 및 파생상품 관세(36.3%)’ 등 자동차 제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관세의 영향이 크다고 응답(1, 2순위 합산)
 - 미국 관세의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을 제외한 135개 기업 중 관세 대응을 위해 준비 중인 기업은 약 44.4%로, 주로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21.5%)하거나 거래처와의 관세 부담 협의(13.3%)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

[표 1] 사업전환 의사 및 미국 관세 영향

(단위 : 개, %)

구분		전체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	기타
응답 기업 수		210	38	106	63	3
사업 전환	현재 계획 중	1.4	2.6	0.9	1.6	0.0
	현재 추진 중	0.5	2.6	0.0	0.0	0.0
	향후 의사 있음	0.5	0.0	0.9	0.0	0.0
	의사 없음	97.6	94.7	98.1	98.4	100.0
관세 영향	직접 영향권 (수출기업 등)	8.1	15.8	7.5	4.8	0.0
	간접 영향권 (수출기업 납품 등)	43.3	52.6	46.2	34.9	0.0
	일부 반사이익 기대	0.5	0.0	0.9	0.0	0.0
	잘 모르겠음	12.4	5.3	10.4	20.6	0.0
	영향 없음	35.7	26.3	34.9	39.7	100.0

○ 2022년 1월 인천시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과 미래차 부품 관련 핵심기술을 특화·육성하고자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22~’26)」을 마련하고, 관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

- 인천시는 관내 자동차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5대 전략 과제에 대해 2026년까지 총 1,10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해당 전략의 일환으로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 중
- 또한 인천테크노파크 미래차센터에서는 인천시의 미래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①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②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③시제품 신속개발 ④미래형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용화 등 크게 4개 분야의 지원사업을 운영
- 2026년에는 자동차 부품기업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차 기술 전환 컨설팅(‘26년 7개 내외) △미래차 대중소 기업 상생 브릿지(오픈이노베이션) 액셀러레이팅(‘26년 7개 내외)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¹⁰⁾

10) 2025년에 「미래차 ACEs(Autonomous, Connected, Electric, Shared/Service)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함.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부품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전환 지원을 추진

- 또한 3D 프린터 등 시제품 제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내 기업의 자동차 핵심부품의 시제품 제작 및 역설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차 부품에 대한 진동·성능·내구성 평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 중

○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구현 △친환경 자동차 가격 안정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국 제조업 보호 강화 등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흐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인천시는 관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사업을 개발·추진할 필요

- 중앙정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26~’35)」과 연계하여 인천시 기업을 지원할 방안에 대한 탐색이 요구
 - 정부는 자율주행 선도 국가 진입 및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을 목표로 △친환경차 R&D 인센티브 강화 △기업의 AI 팩토리 전환 지원 △로봇-인간 협업 및 근로자 직무전환 교육 △자율행차 실증사업 추진 △대규모 R&D 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할 계획
 - 인천시는 동 전략에서 추진하는 기업 지원사업의 정보를 정리·홍보하여 관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실증사업 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의 사업 접근성을 향상할 필요
-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당 지원 기업 수가 충분치 않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평가센터·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등 미래차 기술 실증사업의 체계적인 연계를 위해 관련 사업의 보완이 요구
 - 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는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의 지원사업은 대체로 단기·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산업생태계 전환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가 요구
 -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커넥티드카 인증평가 센터가 인천에 소재한 만큼 지역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며, 자율주행-커넥티드카 교통시스템 등의 기술 실증을 한 지역에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보를 추진할 필요
- 또한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①거래처 다각화 지원 ②연구·설비 투자자금 지원 ③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인센티브 마련 ④2세 경영인 연계 R&D 사업 등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할 필요
 - 관내 기업들은 대체로 내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계 거래처의 업황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기업 역시 주요 수출국 1~2곳에 의존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므로, 문제 발생 시의 기업 회복력 증진(대응 유연화)을 위한 거래처 다각화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
 -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관내 기업들은 기존 거래관계에 고착되어 있으므로,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전환 인센티브를 마련해 관내 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할 필요
 -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은 평균 업력 20년 수준의 중기 존속기업으로 사업주의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고 2세 경영인의 산업 진입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2세 경영인들의 가업 승계 시점과 연계하여 신규 산업 분야 발굴 컨설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사업전환 관련 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도 중요

제조 >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정밀기계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 2026년 1월 기준 국내 기계장비산업 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17.4% 증가, 전월대비 4.2% 감소한 69,629억 원으로, 지난 2025년 10월 급감했던 수주실적이 회복
 - 기계장비산업 총수주액은 국내외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지난 11월 이후 연속 3개월째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증가세
 - 1월 수주액은 △전기기계(45.8%) △일반산업용기계(10.2%) △특수산업용기계(2.7%) 등 수주 금액 비중이 높은 세부 부문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총수주액이 전년동월비 크게 확대
 - 2026년 1월 기준 국내 수요는 공공부문이 전년동월대비 50.6%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이 21.3% 증가하여, 국내 수요 총액이 3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증가세
 - 대리점 수요는 2025년 이후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같은 기간 해외수요가 확대되며 2026년 1월에는 해외수요의 총수주액 대비 비중(49.8%)이 국내수요 비중(45.5%)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표 1] 국내 기계장비산업 수요자별 수주액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6.01
총수주액 (증감률)	64,066 (-7.0)	57,029 (-22.1)	55,508 (0.0)	66,293 (19.7)	48,637 (-13.0)	62,287 (6.1)	72,712 (14.0)	69,629 (17.4)
국내 (증감률)	29,179 (5.4)	24,352 (-38.2)	27,294 (5.2)	31,512 (27.6)	22,277 (-17.1)	28,941 (9.8)	35,500 (11.6)	31,658 (13.4)
대리점 (증감률)	4,926 (-43.1)	4,709 (-40.5)	3,789 (-46.3)	3,481 (-50.9)	2,917 (-54.5)	3,037 (-59.8)	3,204 (-44.6)	3,265 (-6.0)
해외 (증감률)	29,961 (-7.9)	27,968 (8.0)	24,425 (8.6)	31,300 (32.6)	23,443 (3.5)	30,309 (22.3)	34,008 (30.0)	34,706 (24.4)

* 자료 : 통계청, '기계수주동향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3 : 2026년 3월 4일 기준, 지수 작성 방법에 따른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결과가 반영되어 일부 시계열이 변경

- (전국) 2026년 1월 기준 국내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약한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으나, 2월 기준 수출액은 대외 여건 악화에 따라 전반적인 실적이 감소
 - (생산지수) 2026년 1월 기준 전국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20.3% 감소,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한 97.7로, 지난해 연말 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예년과 유사한 추이

-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23년 이후 연말인 11월~12월에 소폭 증가했다가 1월에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가 꾸준히 지속
- 같은 기간 출하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8%,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하며, 기계장비 경기가 소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
- **(품목별 수출액)** 2026년 2월 국내 기계장비 수출액은 전월대비 9.8%, 전년동월대비 12.9% 감소한 386.7천만 달러로¹¹⁾, 기계장비 분야의 모든 부문에서 전년동월비 수출액이 감소하며 전반적인 수출 실적이 악화
 - '26년 2월 기준 기초산업기계 및 산업기계 부문의 수출액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20.4%, 13.3% 감소하였으며, 2024년 이후 지속되던 수출액 감소세가 점차 심화하는 추세
 -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하여 2025년 이후 완만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밀기계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 감소, 전월대비 2.0% 증가한 91.9천만 달러로 타 부문과 달리 2026년 들어 수출액이 소폭 증가
 - 한국기계연구원(2026)에 따르면 2026년 기계장비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 보호무역주의, 지정학 분쟁으로 인한 물류난 등으로 인해 감소할 전망
- **(인천)** 인천의 2026년 1월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111.9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월 기준 수출은 수출액 감소세가 점차 확대하는 추세
 - **(생산지수)** 2026년 1월 기준 기계장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6.1% 증가, 전월대비 36.5% 감소한 111.9 수준으로, 계절 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추세
 - **(품목별 수출액)** 2월 인천의 기계장비 총수출액은 전월대비 9.5%, 전년동월대비 43.4% 감소한 약 28.6천만 달러로, 지난해까지 40~50천만 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2026년 들어 급감
 - 지난 1월 기준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정밀기계 분야의 수출액은 직전월('25.12월) 대비 20% 이상 급감하였으며, 2월 기준으로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53.9%, 47.6%, 37.2% 감소하여 수출액 감소세가 확대
 -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부문은 타 부문과 달리 전년동월대비 3.2% 감소, 전월대비 2.1% 증가한 7.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025년 하반기와 유사한 수준

[표 2] 국내 기계장비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

지역	항목	'25.10	'25.11	'25.12 (p)	'26.01 (p)	'25.01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기계장치 제조업	88.4	103.6	122.8	97.7	87.6	-20.4	11.5
인천	기계장치 제조업	161.5	162.0	176.1	111.9	96.4	-36.5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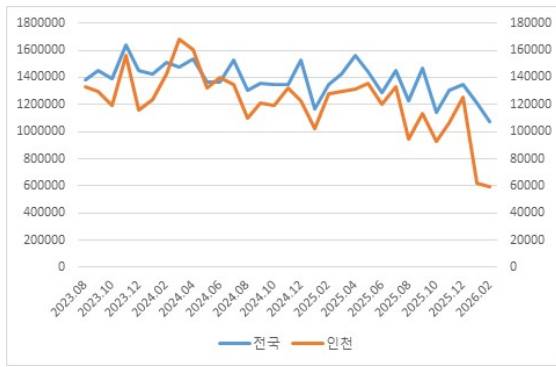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의 자료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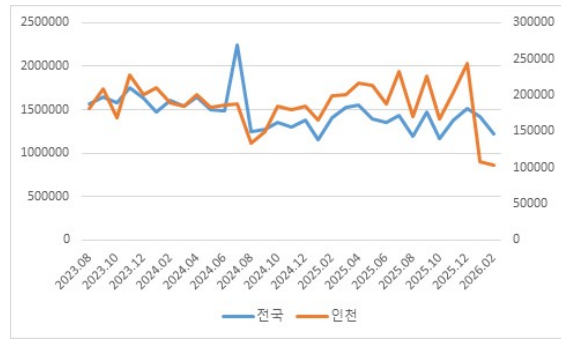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3 : 2026년 3월 4일 기준, 지수 작성 방법에 따른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결과가 반영되어 일부 시계열이 변경

11) 기계장비 수출액은 기초산업기계(MTI71), 산업기계(MTI72), 정밀기계(MTI73),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MTI75)의 수출액 합산 값을 의미.



[기초산업기계(MTI71)]



[산업기계(MTI72)]



[정밀기계(MTI73)]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MTI75)]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기계장비 품목별 수출 동향(2026.02)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6.01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30.0	-0.6	108.7	7.1	103.0	-20.6	130.8	-13.1	131.3	-15.8	152.9	18.8
자동차	127.8	17.4	124.8	16.4	135.5	14.2	131.0	30.6	120.3	28.7	151.4	5.5
기계장비	97.7	11.5	95.7	7.8	129.0	4.5	111.9	16.1	107.8	14.8	152.8	12.9
바이오-의약	151.6	5.1	158.5	8.5	-	-	260.4	-4.9	210.9	20.5	-	-
바이오-화장품	94.3	7.2	93.4	3.4	107.9	-0.6	130.1	19.5	117.5	24.2	98.4	-17.4
건설 수주액 (억원, %)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36,475	62.2	87,829	21.9	766	-66.6	9,386	254.1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 2026년 3월 4일 기준, 지수 작성 방법에 따른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결과가 반영되어 일부 시계열이 변경

경제 > 금융위, '새출발기금' 인센티브 및 재기 지원 강화 추진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잠재적인 부실에 대응하고,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장기의 채무상환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이행하여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2026년에는 △조기·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상환유예 확대 △재기지원 강화 등을 중점 개선 사항으로 추진

구분	주요 내용
조기·성실 상환 인센티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1년 이상 성실상환 차주가 잔여채무를 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 • (성실) 90일 미만 연체 부실우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1년간 성실상환 할때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를 추가 인하(최대 4년간)
상환유예 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이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에 대해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휴직, 중증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를 부양하는 경우까지 확대
연계 취·창업 프로그램 및 재기지원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 청년취업사관학교,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경우에도 추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연계 확대 • (재기) 지자체 운영 컨설팅·금융·폐업 지원 혜택을 전국 9개 지자체 및 중개형 채무조정자까지 확대

금융 > 정부, 기업·국민의 탄소 감축 투자에 금융지원 실시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국민의 탄소감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리 융자 및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
 - 산업부는 기업당 최대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1.3% 수준의 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4월 10일까지 모집할 예정
 - 동 사업은 대·중·소 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며, △EU 탄소국경제도 대상 6개 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넷제로 챌린지」 선정기업에는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
 - 국토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고, 3월 17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
 - 사업 재개에 따라 기본 이자지원율을 4.5%로 상향하고, 에너지 성능개선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면 최대 5.5%까지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
 - 각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 확인 및 신청이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 최근 중동 정세 급변에 따라 수출입 차질 및 물류 지연 등 기업의 피해를 대응·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에서 피해 기업 지원을 추진
 -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의 잠재적 피해 요소를 점검하고 '중동상황 피해·해로 접수 창구'를 설치하였으며, '수출바우처 전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
 -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동 바우처는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포함하며, 3일 이내의 신속심사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지원
 - 이 외에도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의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는 정책자금 대출 특별만기연장을 추진할 계획
 - 산업통상부 산하 코트라는 중동상황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등의 항목을 포함한 긴급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역보험공사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한도 확대 및 만기 연장을 포함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또한 국세청은 중동상황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을 지원하고,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13조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의 모빌리티 정책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
 - 동 로드맵은 모빌리티 분야의 두 번째 청사진으로, AI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탄소중립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도시 등 5대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혁신 전략을 제시
 - 국토부는 동 로드맵을 통해 민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 마중물 투자 및 제도 개선, R&D·금융 연계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

구분	주요 내용
자율주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33%;">• 자율주행차 실증 본격화 <li style="width: 33%;">• AI 인프라 확충·기술 고도화 <li style="width: 33%;">• 규제 합리화 서비스산업 육성
도심항공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33%;">•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li style="width: 33%;">• 드론 국산화·자유화구역 확대 <li style="width: 33%;">• AI 융합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33%;">• 전기차 배터리 안전 강화 <li style="width: 33%;">• 수소차 보급 확대·수소열차 도입 <li style="width: 33%;">• 하이퍼트브 핵심기술 개발·실증
모빌리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33%;">• AI 기반 물류서비스 강화 <li style="width: 33%;">•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li style="width: 33%;">•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기반 공고화
모빌리티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33%;">•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혁신 <li style="width: 33%;">•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li style="width: 33%;">• 건축물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3월 10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되어, 오는 9월 11일부터(ISMS-P 규정은 '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

- 동 개정안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 및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

구분	주요 내용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최근 3년간)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1천 명 이상 대규모 피해, 시정명령 불이행 후 유출 사고 등)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수준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 운영하면 과징금 감경(고의 중과실 제외)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지 의무화 •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위조·변조·훼손도 통지·신고 대상에 포함
대표자(CEO)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에 개인정보 및 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 부여 •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의 CPO 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개인보호위 신고 의무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인력 관리·예산 확보 수행(CPO), 이사회 보고(CEO)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ISMS-P 인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민간 분야의 파급력이 큰 주요 기관·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 의무화

#국토교통부

○ 3월 12일 국토교통부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특화단지형 △강소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공모를 시작

- '거점형' 및 '특화단지형'은 오는 5월 11~13일 2026년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공모·접수할 예정
 - '거점형'은 AI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곳을 선정하여 3년간 국비 최대 160억 원을 지방비와 1:1 매칭 방식으로 지원
 - '특화단지형'은 스마트도시 여건 및 R&D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기업의 기술 실증에 친화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우수한 역량과 사업계획을 갖춘 도시 2곳을 선정해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방비와 1:1 매칭 방식으로 지원
- '강소형'은 지자체 주도로 스마트도시를 자율 조성할 수 있도록 2027년 지원 기준을 안내하며,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예산 신청을 진행하여 총 3곳 이내에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방비와 1:1 매칭으로 지원
- 동 사업의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관계부처 합동

-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을 위해 11개 부처가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
 - 동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보건·복지·환경 △생활·보안·방산 등 산업·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1~2년 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개발·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제품의 개발·출시를 지원할 예정
 - 출연·보조·융자를 포함해 2026~7년 총 7,540억 원을 투입하며, '26년에는 제품 개발·출시 비용을 위한 4,735억 원의 출연·보조금과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 전용 융자 1,400억 원 등을 지원
 - AI 공급·수요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컨소시엄 또는 개별기업은 누구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AI 모델 개발을 위한 △HW·SW 확보 △실증·양산 △인증·지재권 획득 △홍보 등의 비용을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민간 매칭 30% 이상)
 - 동 사업으로 출시된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민간·공공 판로, 규제개선 등을 후속 연계 지원을 추진할 계획
 - AX스프린트의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부·농축산부·산업부·해수부 등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교육부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대학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성인 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의 사업계획을 발표
 - 동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집중캠프'와 3개 내외의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의 2가지 유형으로 운영
 - 교육 수강을 원하는 30세 이상 재직자는 '케이무크'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참여를 원하는 대학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학 총장 명의의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
 - 올해는 지난해 총 30개교였던 집중과정 운영기관을 38개교 내외로 확대(캠프형 5개 내외, 강좌형 3개 내외 신규 선정)할 예정으로, 기존 운영사에는 연차 평가를 거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
 -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 분야에 필요한 실무중심 인공지능·디지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 2026년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4월 7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5월 중 선정을 거쳐 8월 이후 교육과정 운영이 시작될 예정

참고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경제동향(2025.12)」, 2025.12.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5년 11월)」, 2025.11.27.
-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2025.11.13.
- 연합뉴스, “[1보] 美 “한중일등 16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2026.03.12.
- 연합뉴스, “한국GM “국내에 3억달러 투자계획…2028년 이후 생산 지속 기반”(종합)”, 2025.12.15.
- 연합뉴스, “GM, 韓사업장에 총 8천800억원 투자…소형SUV 생산거점 굳힌다(종합)”, 2026.03.25.
-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사업체조사’.
- 공공데이터포털, ‘산업부_기업별 자동차 산업 현황’.
-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시 주력 산업 기업 현황 조사 - 자동차 부문」, 2026.03.
-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산업 2025년 성과와 2026년 전망」, 기계기술정책 no.121, 2026.02.
- 국가통계포털(KOSIS), ‘기계수주동향조사’.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조기상환시 5~10% 추가 감면”, 금융위원회, 2026.02.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3% 금리로 최대 500억 원 융자 지원”, 산업통상부, 2026.02.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3년 만에 재개…건설팅도 무상 지원”, 국토교통부, 2026.03.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기부, 중동상황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TF 가동”, 중소벤처기업부, 2026.03.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동상황 영향 중소·중견기업에 13조 3000억 원 자금 지원”, 금융위원회, 2026.03.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중동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산업통상부, 2026.03.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동상황 피해 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 2026.03.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기부, ‘긴급 물류바우처’ 신설…중동상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2026.03.0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동 지역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 바우처 105억 원 긴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2026.03.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에 완전자율주행 상용화…’2030 모빌리티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 2026.02.26.
- 국토교통부,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성장엔진-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2026.0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3.0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로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최대 560억 지원”, 국토교통부, 2026.03.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제품 246개 개발에 7540억 원 지원…산업·일상 AI 전환 속도”, 관계부처합동, 2026.03.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AI·디지털 집중 과정’ 지원 확대”, 교육부, 2026.02.20.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3호(2026.03.27)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일 2026년 03월 27일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